

2023-1학기 학습성공스토리 공모전[에세이]

인적 사항				
소 속		학 번		비고
이 름		연락처		

제 목	나는 천천히 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뒤로 가지는 않습니다.			
교과목	서양문명의 역사	담당 교수명	김정은	
구 분	교양			

학습 성공 스토리를 말하기 앞서 이 공모전의 주제는 링컨의 명언이자 저의 신념이고 가치관입니다. 저는 사실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학생이었습니다. 1학년 1학기 때의 성적은 2.33, 남들이 말하는 학교를 공부하기 위해서가 아닌 소위 놀러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군대를 다녀오고 복학을 한 후 아무것도 이뤄놓지 않은 저에게는 가장 빠르게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방법 중 한 가지는 좋은 학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양문명의 역사라는 수업을 들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핵심 교양 중 한 과목을 필수적으로 수강 해야만 하는 입장으로 대학생 커뮤니티에 브리타임에서 강의평이 만점에 가까운 서양문명의 역사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를 처음 수강 신청 할 때 모든 강의평은 범위는 넓으나 교수님이 매우 열정적이시고 이 강의를 듣지 못한다면 등록금이 아깝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전 수강생분들께서 극찬하셨던 수업이었던 터라 신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양문명의 역사는 서양의 문명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범위가 정말 넓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교수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십니다. 교수님께서 정정 기간에 강의 PPT 전체를 한꺼번에 올려주시고 그 자료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십니다. PPT는 PDF 파일로 구성되어 양이 많지만 간결하게 중요한 키워드의 문장만 적혀있고 키워드를 가지고 교수님께서 마치 재미있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쉽게 설명해주십니다. 강의 시작은 스마트 출석이 아닌 직접 일일이 얼굴을 보시며 학생 한명 한명을 기억하려 출석을 부르시고 그날의 강의와 관련된 영상을 미리 보여주심으로써 학생들의 수업 이해를 높이려고 노력하셨고 저 또한 그 영상을 보며 미리 나올 내용을 한번 인지하고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과제로 팀 프로젝트는 없고 수업내용과 관련된 영상을 보면서 교수님께서 주신 질문지에 대한 답을 적는 형식으로 영상을 집중하다 보면 누구나 다 작성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시험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총 두 번의 시험으로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매 강의시간 마다 중요한 부분이 나오면 예상 시험문제와 그에 대한 정답까지 다 설명해주시는데,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 해주신 부분은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필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학습 방법에 대해 말하기 앞서서 수업을 듣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업을 듣는 마음가짐이란 수업 시간보다 1시간에서 30분 정도 일찍 도착하여 마음을 진정시키고 수업 시작 전 10분을 복습하는 느낌으로 한번 훑어보는 것입니다. 복습할 내용이 많다면 시간을 조금 더 사용합니다. 현재 수업을 들어가는 선후배, 동기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강의실에 일찍 도착하여 뒷자리에 앉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업을 맨 앞자리에 앉아 수강합니다. 맨 앞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자리 일 수 있으나 이 수업을 내가 가장 열심히 들겠다는 의지와 강의를 가르치시는 교수님과 교감을 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

니다. 그 예로 제가 강의시간에 필기를 하는 도중 다음 부분을 놓쳐 잘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을 때 교수님께서 저의 표정을 보시고는 다시 한번 설명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의 학습 방법의 첫 번째로 강의 시간 동안만큼은 교수님의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고 집중합니다. '당연히 해야 할 기본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막상 강의를 수강하다 보면 실천하는 학생은 극히 드물고 그 기본을 완벽히 수행하는 사람 또한 극히 소수입니다. 저 또한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강의 시간의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고 외우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잠깐의 짧은 시간을 활용하여 중요한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그 외에 이해에 도움이 되는 말들, 예를 들어 사건의 전개, 인물의 대립 관계 등을 자신이 알아볼 수 있게 한쪽 여백에 요약하여 적어 놓습니다.

두 번째 저의 학습 방법은 반복입니다. 저는 스스로 머리가 좋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 강의 시간에 집중하여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복습할 때 다시 강의 시간을 떠올리며 여러 차례(3회~5회) 읽고 흐름을 파악하고 시험 기간에 따로 정리한 노트를 가지고 마찬가지로 3회~5회 정도를 읽으며 흐름은 물론 키워드까지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 정도로 읽습니다. 본 강의는 한국사와 마찬가지로 역사가 흐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흐름을 파악하고 그 흐름에서 나오는 사건의 전개를 파악한다면 이해는 물론 자연스럽게 머리가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저의 학습 방법의 마지막은 노트필기입니다. 저는 태블릿보다 종이와 볼펜으로 필기하는 것이 더 친숙하여 매번 PPT를 출력하여 종이에 필기합니다. PPT를 매번 출력하는 것이 귀찮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매번 그 행위를 인지함으로써 미리 강의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게 하고 한 번이라도 수업내용을 더 떠올릴 수 있게 해줍니다. 위의 과정을 거쳐 강의 시간에 필기한 내용을 토대로 시험 기간 시작 전 공책에 중요한 부분을 모두 적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형광펜을 이용하여 눈에 띄게,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은 빨간색 볼펜으로 눈에 들어오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여러 색을 사용하여 공부하는 것을 반기지 않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글자는 뇌에서 한번 해석하여 들어오고 색은 뇌에서 바로 받아들인다는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어 제가 경험해 본 바 저에게는 이 학습 방법이 효과가 있었고 그 결과 암기과목이 가장 취약한 저에게 A+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강의는 한편으로 보면 암기과목입니다. 어려서부터 저에게 있어서 암기란 꾸기 싫은 악몽이었고 암기보다는 이해가 먼저인 저에게 서양문명의 역사라는 강의는 저의 공부 방법에 대한 희망의 실마리였고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러한 자신감에 힘입어 영어 공부를 깊게 행하여 본 적이 없는 저에게 현재 토익 공부를 진행하는 이 시점, 저는 매주 모의 토익에서 점수가 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학습계획으로는 매일 더해지는 자신감으로 토익 990점과 전 과목 A+을 맞는 것이 목표입니다. 보잘 것 없었던 1학년과는 달리 3학년인 저의 학점은 4.33, 저의 눈앞의 목표를 누군가는 '터무니없다', '혹은 너무 쉬운 것이다'라고 하는 비난이 있을지라도 저는 제멋처럼 제 스스로를 믿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매 순간을 집중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날엔 저의 신념을 다시 한번 되뇌어 저를 채찍질하겠습니다. 서양문명의 역사라는 명강의를 가르쳐주신 김정은 교수님은 저에게 공부 그 자체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바꿔주셨고 저 또한 누군가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진정한 어른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노력하는 사람은 많으나 저는 그 노력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하며 견디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확신이 가득한 말과 함께 글을 끝맺겠습니다.

당선작 및 응모작의 저작권 등 권한은 본교 CTL로 귀속되며, 제2차 저작물로 교수학습 지원 프로그램 및 학내 홍보물에 활용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동의 비동의
(해당란에)

※ 비동의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2023학년도 1학기 학습성공스토리 공모전 에세이 부문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3년 07월 10일

제출자 :

조선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장 귀중